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4. 2. 8.(목) 07:00 ~ 2024. 2. 12.(월) 22:00
- 상담건수¹⁾: 2,293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진행자 호평(3명)

-프로그램명 : 「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

-방송일시 : 2024. 2. 10.(토) 1TV (08:20-09:20)

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김홍성·가애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지 않아 깜짝 놀랐고, 지난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는 걸 알게 됐다. 두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진행을 맡아왔기에 정이 들었고,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서운하다. 아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. 추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.

○ 재방송 편성 불만(20명)

-프로그램명 : 「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」

-방송일시 : 2024. 2. 10.(토) 1TV (09:30-11:10) (재)

설날 오전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는데, 대통령 특별대담 재방송이 편성되어 실망스러웠다. 이미 했던 방송인데 황금시간대에 왜 재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생방송 기자회견도 아닌 녹화방송의 재방송을 굳이 이 시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45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청원 성사 : ‘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’ 진행자 불만 외 9건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2,293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1,261	206	-	-	826	2,293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1,147	797	41	-	3	305	2,293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787	1,506	-	2,293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1,905	5	84	299	2,293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박원숙의 같이 삽시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방송 편성 불만 ○ 「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성 제언 ○ 「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방송 편성 불만 ○ 대하드라마 「고려 거란 전쟁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방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다큐 인사이드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제언 ○ 「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행자 호평 ○ 「설 기획 국악 한마당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섭외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2024설날장사 씨름대회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편성 제언」 30건 ○ 「KBS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재방송 편성 불만」 18건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진북 문의」 연락처 문의 17건 ○ 「KBS 뉴스 9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진행자 제언」 13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샷샷조개칼국수」 연락처 문의 9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3건 ○ 「수신기술」 문의 2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36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1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34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6건 ○ 「견학」 문의 5건 외 2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299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재방송 편성 불만	<p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(8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8.(목) 1TV (10:00-11:10) (재) - 30년 동안 이 시간에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를 시청했다. 그런데 채널과 시간대를 변경하고, 해당 시간에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재방송이 편성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여배우들이 놀러 다니면서 먹고 즐기는 내용으로, 전혀 유익함을 느낄 수 없다. 오전 중요한 시간대 재방송 편성이 아쉽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편성 제언	<p>○ 「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」 ‘태백장사’(18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9.(금) 1TV (14:10-15:50) -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씨름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다.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었는데, 결승 마지막 한 판이 남은 상황에서 편성 관계로 중계를 중단했다. 정규방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, 결승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을 조금씩 뒤로 미루더라도 결승전을 끝까지 보여주었어야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재방송 편성 불만	<p>○ 「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」 (20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10.(토) 1TV (09:30-11:10) (재) - 설날 오전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는데, 대통령 특별대담 재방송이 편성되어 실망스러웠다. 이미 했던 방송인데 황금시간대에 왜 재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생방송 기자회견도 아닌 녹화방송의 재방송을 굳이 이 시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결방 제언	<p>○ 대하드라마 「고려 거란 전쟁」 (17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10.(토) 2TV (21:15-22:15) - 역사에 대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, 내용도 흥미진진하여 항상 기다리는 드라마이다.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. 대하드라마는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시사 · 교양]	
<div>방송 제언</div> <div>진행자 호평</div>	<p>○ 「다큐 인사이드」 ‘짜장면 랩소디 - 1부 짜장면 먹는 날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8.(목) 1TV (22:00-22:50) - 이날 짜장면을 다뤘는데, 짜장면에 대해 이렇게 오래 다룰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게다가 귀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고유의 음식도 아닌 중국음식을 다루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우리 고유의 음식을 다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 <p>○ 「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 (3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10.(토) 1TV (08:20-09:20) - 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김홍성·가애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지 않아 깜짝 놀랐고, 지난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는 걸 알게 됐다. 두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진행을 맡아왔기에 정이 들었고,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서운하다. 아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. 추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출연자 섭외 제언	<p>○ 「설 기획 국악 한마당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10.(토) 1TV (12:10-13:05) - 이날 방송에 개그맨 박성호 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. 국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더구나 설 명절인데 전통 국악인들로만 섭외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라디오]	
출연자 호평	<p>○ 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2. 10.(토) 1R (12:10-13:58) - 이날 1부와 2부의 초대 손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 유익하게 청취했다. 정희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노년을 잘 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어 도움이 됐고, 추후 그 분의 책을 구매해보고자 한다. 김영식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이 음원을 발매했다는데, 곡이 정말 좋았다. 여러모로 유익한 방송이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